

2019년 7월 1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금리인하 기대에 힘입어 상승 전환 존 윌리엄스 총재 “재난 발생을 기다리기 보다 예방 조치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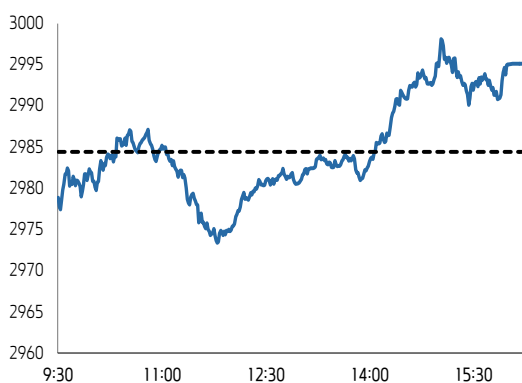
미 증시 반등 요인: 반도체 업종 강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미 증시는 장 초반 넷플릭스 실적 발표로 FANG 기업들이 하락 주도. 그러나 므누신이 중국과의 전화 통화를 언급하자 낙폭이 제한. 이후 반도체 및 금융주를 비롯 일부 개별 기업들이 개선된 실적을 발표하며 반등에 성공. 여기에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를 비롯해 연준위원들이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상승 전환 성공(다우 +0.01%, 나스닥 +0.27%, S&P500 +0.36%, 러셀 2000 +0.31%)

미 증시는 ①기업들의 실적 발표 ②미-중 무역분쟁 ③연준의 금리인하 이슈 영향을 받아 변화. 전일 장 마감 후 실망스러운 사용자 증가를 발표한 넷플릭스가 급락하자 FANG 기업들이 나스닥 하락 주도. 그러나 대만의 TSMC 가 5G 칩의 견조한 수요로 하반기에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발표하자 마이크론과 AMAT 등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 이 결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4% 상승. 한편, 모건스탠리와 유니온퍼시픽, 필립모리스 등 개별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로 관련 업종이 동반 강세를 보이는 등 견조한 모습

이런 가운데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은 미-중 무역협상과 금리인하 이슈. 먼저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전화 통화를 할 것이며, 잘 진행된다면 직접 만남을 가지는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 더불어 화웨이 문제가 협상의 걸림돌이 아니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던 화웨이로 인한 협상 정체는 없다는 점도 언급. 므누신 발언은 미-중 무역분쟁 격화 우려를 일부 완화 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더불어 지난 6 월 7 일 금리 동결을 주장 했던 중도 성향의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 연준은 강력하게 행동해야 한다” 라고 언급. 더 나아가 “재난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라고 주장. 여기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너무 낮다” 라고 언급하며 금리인하를 시사.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주장하고, 블라드 총재도 7 월 25bp 금리인하 언급해 연준의 금리인하 불확실성 완화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2,066.55	-0.31	홍콩항셱		28,461.66	-0.46
KOSDAQ		665.15	-0.17	영국		7,493.09	-0.56
DOW		27,222.97	+0.01	독일		12,227.85	-0.92
NASDAQ		8,207.24	+0.27	프랑스		5,550.55	-0.38
S&P 500		2,995.11	+0.36	스페인		9,225.70	-0.63
상하이종합		2,901.18	-1.04	그리스		870.58	+0.30
일본		21,046.24	-1.97	이탈리아		22,090.81	+0.0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54%

넷플릭스(-10.27%)는 가입자수가 부진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8년만에 미국내 가입자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 했다. 한편,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알파벳(+0.04%), 페이스북(-0.51%), 아마존(-0.71%) 등 IT 기업들에게 유럽에서의 매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대형 기술주 하락 요인이었다. 반면, 애플(+1.14%)은 투자 의견 상향 조정과 TSMC 실적 개선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를 보였다. MS(+0.11%)는 시간 외로 양호한 실적 발표 후 2% 가까이 상승 중이다.

담배 제조회사인 필립 모리스(+8.22%)는 양호한 실적과 가이드스 상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했다. 경쟁사인 알트리아(+2.18%)도 동반 상승했다. 모건스탠리(+1.51%)가 주식거래 수익 14% 감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자산 관리 부문 수익 증가에 힘입어 상승 했다. JP모건(+0.60%), BOA(+0.99%) 등 금융주도 동반 상승 했다. 유니온퍼시픽(+5.89%)도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다. 한편, IBM(+4.59%)는 클라우드 및 데이터 플랫폼 부문 개선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다. 마이크론(+3.00%), AMAT(+4.22%), 램리서치(+3.40%) 등은 이러한 IBM의 실적 발표와 대만의 TSMC(+3.75%)의 하반기 양호한 실적 전망 소식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81%	대형 가치주 ETF(IVE)	+0.48%
에너지섹터 ETF(OIH)	-0.57%	중형 가치주 ETF(IWS)	+0.45%
소매업체 ETF(XRT)	-0.56%	소형 가치주 ETF(IWN)	+0.16%
금융섹터 ETF(XLF)	+0.75%	대형 성장주 ETF(VUG)	+0.23%
기술섹터 ETF(XLK)	+0.75%	중형 성장주 ETF(IWP)	+0.4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45%	소형 성장주 ETF(IWO)	+0.57%
인터넷업체 ETF(FDN)	-0.60%	배당주 ETF(DVY)	+0.35%
리츠업체 ETF(XLRE)	-0.0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90%
주택건설업체 ETF(XHB)	-0.1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80%
바이오섹터 ETF(IBB)	+0.82%	미국 국채 ETF(IEF)	+0.25%
헬스케어 ETF(XLV)	+0.56%	하이일드 ETF(JNK)	-0.02%
곡물 ETF(DBA)	-0.73%	물가연동채 ETF(TIP)	+0.21%
반도체 ETF(SMH)	+1.80%	Long/short ETF(BTAL)	+0.0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1.75	-0.01%	-2.82%	+1.12%
소재	365.68	+0.43%	+0.92%	+1.96%
산업재	649.23	+0.25%	+0.05%	+1.02%
경기소비재	976.38	-0.22%	+0.09%	+3.20%
필수소비재	621.45	+0.82%	+1.24%	+3.47%
헬스케어	1,072.41	+0.54%	-0.91%	-0.34%
금융	465.94	+0.82%	-0.25%	+3.25%
IT	1,423.02	+0.81%	+0.69%	+4.47%
커뮤니케이션	167.72	-0.89%	-1.14%	+2.35%
유틸리티	310.70	+0.79%	+0.38%	+1.37%
부동산	231.58	-0.15%	-1.00%	-1.7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호재성 재료가 많은 하루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8% MSCI 신흥 지수 ETF 도 0.61%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744 계약)에 힘입어 1.60pt 상승한 272.7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71.8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에 대한 호재성 재료가 많은 하루다. 전일 대만의 TSMC 가 실적발표에서 5G 칩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하반기에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IBM, MS 등 미국의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관련 부문의 매출 증가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도 발표되었다. 이러한 소식은 한국의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 기대를 높인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이와 함께 애플과 그 부품 업체인 스카이웍에 대해 5G 폰에 대한 기대를 이유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해 한국의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도 긍정적이다. 한편, 미-중 무역분쟁 우려를 완화 시켜준 므누신 미 재무장관의 발언, 연준의 금리인하를 시사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 등도 불확실성 완화 기대를 높였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이렇듯 최근 한국 증시에 부담을 줬던 일부 요인들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우호적이다. 다만, 미군이 이란의 무인항공기를 '방어 조치'를 이유로 격추시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 영향이 국제유가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 지표 개선

7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0.3)이나 예상치(3.9)를 크게 상회한 21.8 을 기록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8.3→18.9), 고용지수(15.4→30.0) 등 대부분이 개선 되었다. 이를 감안 ISM 제조업지수 개선 기대를 높였다.

미국 6 월 경기 선행지수는 0.3% 하락 했다. ISM 신규주문, 고용 및 무역 판매 감소 등이 반영된 결과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시간외로 하락폭 축소

국제유가는 허리케인으로 중단되었던 멕시코만 시추시설의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매물 출회되며 낙폭이 확대되었다. 특히 전일 미 에너지 정보청이 주간 원유재고 보고서를 통해 가솔린 재고 급증을 발표한 점이 오늘도 투자심리를 위축 시킨 요인이다. 한편, 원유시장 마감 후 트럼프가 미 해군이 이란의 무인항공기를 격추시켰다고 발표하자 중동 발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로 시간 외 국제유가는 낙폭을 축소하고 있다.

달러화는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연준위원들의 금리인하 시사 발언이 이어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특히 중도 성향의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도 7 월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약세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에 블라드 총재와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발언도 약세 요인 중 하나 였다.

국채금리는 연준위원들의 금리인하 시사 발언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는 “인플레 기대치가 너무 낮다. 문제를 기다리기 보다는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라고 주장했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7 월에 25bp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라고 언급 했으며,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성장을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주장 했다. 장 막판에는 미 해군의 이란 무인항공기 격추소식이 전해지자 국채금리 하락이 좀더 이어졌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약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78%, 철근은 1.40%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5.30	-2.61	-8.14	Dollar Index	96.721	-0.52	-0.34
브렌트유	61.93	-2.72	-6.90	EUR/USD	1.1275	+0.45	+0.19
금	1,428.10	+0.34	+1.52	USD/JPY	107.26	-0.64	-1.14
은	16.198	+1.42	+6.95	GBP/USD	1.2548	+0.92	+0.22
알루미늄	1,854.00	+0.38	+1.42	USD/CHF	0.9814	-0.62	-0.87
전기동	5,983.00	+0.05	+0.47	AUD/USD	0.7074	+0.91	+1.43
아연	2,465.00	-0.38	+1.52	USD/CAD	1.3032	-0.17	-0.31
옥수수	429.75	-2.66	-4.07	USD/BRL	3.7252	-1.06	-0.78
밀	493.50	-2.37	-5.37	USD/CNH	6.8752	-0.03	-0.02
대두	899.00	-0.17	-1.99	USD/KRW	1178.80	-0.21	+0.45
커피	108.60	+1.12	+1.54	USD/KRW NDF 1M	1171.80	-0.66	-0.2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024	-2.09	-11.36	스페인	0.400	-4.30	-7.20
한국	1.477	-6.50	-7.30	포르투갈	0.466	-4.10	-9.80
일본	-0.130	-0.90	+0.50	그리스	2.124	-9.70	-12.20
독일	-0.310	-2.00	-8.50	이탈리아	1.552	-4.00	-14.60